

# 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회복

## Online Series

2017. 05. 30. | CO 17-13

이우태(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한다는 것이고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월 14일, 21일, 27일, 그리고 29일 등 총 4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남북대화 재개를 검토하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지난 5월 26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대북접촉 승인은 2016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승인된 사례로 인도적 지원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미 스포츠 분야에서는 남북 간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스포츠 분야 교류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줄 초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최근 남북한 스포츠 교류 현황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된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 대회'에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대표팀이 참가하였고 북한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남북공동응원단이 구성되었다. 북한 선수단은 대회기간

동안 공동응원단의 활동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4월 3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안컵’ B조 예선에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방북하여 출전했다.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이 대회에 한국 응원단이 관람을 원할 경우 방북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고 대회기간 동안 북한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었다.<sup>1)</sup>

그리고 오는 6월 24일 전북 무주에서 개막되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하여 개막식 무대에서 시범공연을 벌이기로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과 한국 주도 세계태권도연맹(WTF)이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 대표들은 다음 달 무주에서 만나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답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남북한 간의 스포츠 교류는 2017년 들어서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한 정부 모두 스포츠 교류확대에 있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순기능

스포츠가 정치와 접목되었을 때 스포츠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고,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국가 간 스포츠 교류는 이러한 역기능을 상쇄할 만큼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스포츠 교류는 갈등과 반목관계에 있는 국가 간 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스포츠에는 국경도 이데올로기도 없다’는 말처럼 스포츠는 정치적 색채가 열기 때문에 국가 간 지속적인 회담을 가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회담 결과를 도출하고 이행하기가 수월하다. 또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여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스포츠 분야는 당국 간 또는 민간 부문의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여 갈등기간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스포츠 교류는 국민 간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스포츠 교류는 직접 참여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국민들 사이에도 상호 교감이 발생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불신의 장벽을 허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스포츠의 정치적 순기능은 국제정치사와 남북관계사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냉전시절인 1970년대 상호 반목하던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 수교와 데탕트 분위기 조성은

1) 평양에서 애국가가 연주된 것은 2013년 9월 세계역도대회 이후 3년 7개월만의 일이고 그동안 북한은 자국 내에서 한국의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남북 스포츠 대결을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평통외교’로 알려진 스포츠 교류로 시작되었다. 1971년 4월 미국 탁구대표팀이 중국을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지며 20년 이상 막혀있던 미·중 간 교류의 물꼬를 텃고 1972년 2월 미국 닉슨 대통령이 방중(訪中)에 이어 1979년에 마침내 미국과 중국은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게 된다.

남북관계사에서도 스포츠 교류가 긴장상태의 남북관계를 완화시킨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991년 남북한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 1991년 12월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남북한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 총 9차례 공동입장을 하였고 남·여 친선 축구경기 등과 같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남북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던 2014년 9월에는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대표팀이 참가하였고 폐막식에 소위 북한 3인방(황병서, 김양건, 최룡해)이 방남(訪南)하여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 등과 고위급회담을 가져 일시적으로나마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도 하였다.

### 스포츠 교류와 남북관계 회복

지난 정권에서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킴으로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 중단되었고 북한과의 모든 연락채널이 단절되어 대화를 통한 관계 모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민간교류를 통한 대화의 물꼬를 터서 남북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장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압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의 1.5트랙 대화가 열렸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또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되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 해결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한반도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을 대비해야 하며 북핵문제가 미·중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서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검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 남북 간 교류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는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앞두고 있다. 최근 여자아이스하키와 여자축구에서의 스포츠 교류 성사와 무주 태권도대회의 북한 참가 등과 같은 흐름을

평창올림픽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조직위원회,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는 물론 성화 봉송과정에서 백두산을 경유하거나 북한 마식령 스키장 등에서 일부 종목을 분산개최 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평창올림픽을 짝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접촉이 확대되어 상호 신뢰를 일정부분 회복하게 되고 타 분야로의 남북 접촉이 확대된다면 이는 냉각된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정치색이 옅은 사회문화·체육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KINU 201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